# 결과를 붙잡지 않는 삶

현불논단



덕안 스님
전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얼마 전 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불자가 아닌 의사 한 분과 긴 이야기를 나눴다. 집안은 기독교였지만 자신은 무교라고 했다. 그는 양자역학을 공부하면 불교가 떠오른다고 했다. 고정불변한 실체를 상정하기 어렵고, 존재를 관계와 변화 속에서 바라본다는 점이 닮아 보인다는 것이었다.

물론 양자역학과 불교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말을 듣고 나는 불교의 연기와 무아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을 비롯한 인류의 성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란 것은 자신이 속한 종교 집단의 확대나 유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돕는 것, 그것이 가르침의 출발점이었겠지요. 교단과 제도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자녀 교육으로 이어졌다. 어느 학부모가 아들이 이미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이 서울대에 많이 진학했다는 이유로 다시 서울대 의대에 지원하려 한다며 합격을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의사 선생은 고개를 저었다. "굳이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서울대라는 이름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위해 쓰고 있는가. 어느 학교와 직장, 자리에 올라야 성공했다고 믿는

**AI시대, 안정적 직업·명예 영원하지 않아**
**미래 결과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고**
**타인엔 정성을, 내 마음엔 주의 기울여야**

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고 나면 잃을까 두렵다. 결과를 움켜쥐는 순간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 나는 다시 물었다. "AI시대가 오면 많은 직업이 달라질 텐데, 의사라는 직업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영역을 제외하면 의료의 상당 부분도 AI가 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라 여기는 직업과 명예조차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결국 그날의 대화는 하나로 모였다. 잘 산다는 것은 먼 미래의 결과를 붙들고 오늘을 희생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사는 일이라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까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도 그런 삶을 일러주는 말씀이라 생각한다. 머무르지 않되 마음을 내라는 뜻이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의 노예가 되지 않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상한 세상을 건너는 지혜일 것이다.

얼마 전 제38대 총무원장 소임을 다시 맡은 진우 스님은 국민의 마음 평안과 사회의 화합을 중요한 원력으로 내세웠다. 그 원력이 새 임기에는 더욱 넓고 깊게 실현되기를 바란다. 마음의 평안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며, 지금 일어나는 내 마음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다. 어쩌면 잘 산다는 것은, 결과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일인지도 모른다.

# 혐오 발언과 표현의 자유

세간과 출세간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우리 사회에서 혐오 발언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물론 예전에도 타인에 대한 외모 평가나 간섭은 있었지만, 공개적 모욕은 드물었고 만약 그러더라도 사회적 비난과 자성의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비난은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없다는 점에서 비판과 다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비판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공격이 아닐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풍류(風流)를 기반으로 선불교와 성리학을 더하며 정립해 온 우리 한국 철학은 수행(修行)과 수양(修養)의 전통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면서 타자와의 관계를 예의와 정의(正義), 자비(慈悲)로 이끌고자 하는 삶의 지향을 간직해내고자 한 전통적인 인간상이 바로 선사와 선비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 인간상들을 무조건적 극복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자신의 삶이나 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인간상을 공유하고 있을까? 헌법이나 교육 관련 법에서는 홍익인간 같은

**혐오 발언·근거 없는 비난 분위기 확산돼**
**전통적·이상적 인간상 실종과 경쟁의 폐해**
**타인 존중 기반 '로크적 단서' 재조명 필요**

이상적인 인간상이 분명히 제시돼 있지만, 가정과 학교, 사회로 이어지는 교육의 장들에서도 제대로 살아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우리는 주로 '선다형 중심의 상대평가를 통해 높은 등수를 차지하는 사람'을 교육의 실질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결과 중 하나가 학교 교육에서 특별한 성취를 거둔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 혐오 발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신이 스스로의 삶과 이 사회의 주인공임을 인식하는 것이 민주(民主)의 차원이고, 그 주인인 시민들이 함께 살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공화(共和)의 차원이다. 표현의 자유는 시민 각자가 자유로운 생각을 바탕으로 제약 없이 말할 수 있는 민주 차원의 자유다. 동시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시민에게도 똑같은 정도로 보장돼야 한다는 엄연한 공화적 제약을 포함한다. 다른 사람을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혐오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는 자유주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 있음을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로크적 단서(Lockean Proviso)'다. 우리는 주로 로버트 노직이라는 미국 정치철학자가 계승한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 즉 자연에 대한 내 소유권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약화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로크적 단서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자유를 동시에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단서임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社 說

# 변화의 시대, 중앙종회의 길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가 4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18대 종회는 제37대 총무원 집행부 출범과 함께 종단 운영의 틀을 정비하고 사회 변화에 맞춰 종헌·종법을 손질하는 데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총무원 조직개편과 문화재구역 입장료 감면에 따른 종법 개정, 교구본사 기능 강화, 승려복지 제도 보완 등 종단의 변화에 입법으로 응답했다.

특히 비구니 승가의 참종권 확대에서도 한 걸음 진전했다. 비구니 종회의원이 처음으로 공식 선거를 통해 선출됐고,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법계위원이 탄생했다. 오랜 시간 제기돼 온 비구니 승가의 제도적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물론 아쉬움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앙종회가 대의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앙종회는 입법기구인 동시에 종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종단 변화 따른 제도 정비 성과 보여**
**대립 넘어 소통과 숙의의 길 열어야**

후반기 종회에서 종책모임이 새롭게 출범하고 종회 지형이 재편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문제는 의견의 차이를 어떻게 생산적인 논쟁으로 이끌어 내느냐에 있다.

특히 임기 마지막 해 두 차례 임시회가 성원 미달로 열리지 못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집의 필요성과 안건의 시급성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면 그 차이를 토론하고 설득했어야 한다.

종헌·종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 역시 숙제를 남겼다.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은 두 차례 표결에서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첫 표결에서는 의결정족수에 단 한 표가 부족했고, 두 번째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오히려 크게 줄었다. 이는 종단 구성원들이 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종헌·종법의 정합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대종사·명사 법계의 자동 품수를 둘러싼 문제도 마찬가지다. 제18대 종회가 법계 품수 절차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종헌이 정한 원로회의의 심의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종헌과 종법 사이의 관계는 종단 질서의 근간이다. 아무리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상위 규범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면 다시 살펴야 한다. 제19대 종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중앙종회가 지향점은 '누가 옳으냐'보다 '어떻게 종단의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있다. 종헌·종법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규정이 아니라 종단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다. 따라서 중요한 제도일수록 충분한 숙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특히 비구니 참종권과 법계 제도처럼 종단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은 표결의 승패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접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제19대 종회는 18대에서 마련한 제도적 변화의 틀을 실제 종단의 변화로 연결하고,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과 숙의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10월 14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10월 1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10월 1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